

# 팔복동 우수저류시설 '친수공원' 조성

### 전주시, 7억원 예산 투입 잔디공간·산책로·다목적구장 등 설치... 시민 생활 속 휴식공간 제공

전주시가 유휴 공간으로 방치될 수 있었던 팔복동 일대 우수저류시설의 상부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전주시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적 4,325㎡(약 1,300평) 규모의 추천대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공원은 덕진구 팔복동 일대의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완공된 우수저류시설의 상부에 꾸며졌다.



전주시가 유휴 공간으로 방치될 수 있었던 팔복동 일대 우수저류시설의 상부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적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설치됐다. CCTV와 경관조명도 설치돼 저녁에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시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화장실도 추가로 설치한다.

화장실은 BF심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거쳐 9월안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추천대공원이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돼 시민들이 일상의 피로를 풀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팔복동 지역의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이자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팔복동 일대의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 고도 지정 토대 만든다

### 학술대회·시민공청회 통해 여론 수렴·적극 추진키로

전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교육실에서 '후백제 왕도유적으로서 전주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주제로 전주 고도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후백제의 유적 유물의 특징 및 의미, 왕도로서 전주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경찬 교수(원광대)가 후백제 전주 도성의 기본구조와 핵심시설의 구성형태 등을 담은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골격'에 대한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하인옥 교수(U.C. Berkeley)는 '견훤의 자립과 전주 정도(定都)'를 주제로 역사문헌 기록을 통해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전주를 도읍으로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방민아 학예연구사(전주문화유산연구원)는 동고산성, 후백제 도성벽지, 생산유적 등 그동안 진행된 전주지역 후백제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후백제의 왕도로서의 전주의 고

인지와 구조, 건축을 중심으로 왕궁 조영의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기 중국 오월과 남송의 왕궁 입지 등을 참조하여 건축과정에 대해 김재홍 교수(국민대)가 발표한다.

조명일 교수(군산대)는 '전주지역 후백제 성곽유적과 관방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후백제 산성의 특징과 동고산성, 서고산성, 금구산성 등의 축성법을 확인하고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를 방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성과와 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전용호 학예연구관(국가유산청)은 전주 동고산성, 오목대 후백제도성벽 등 유적지 등에서 출토된 후백제 시기 와당 등을 중심으로 후백제 유적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전주 고도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로 역할을 했던 유서 깊고 의미 있는 역사 도시"라며 "학술조사와 전문가 자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가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 경제·문화 교류 협력 논의

### 협의회 회원 20여명, 자매결연협약·선진기업 방문 위해 전주 찾아

전주시는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이우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경제산업 및 문화교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자매결연협약 및 선진기업 방문을 위해 지난 13일 전주를 찾았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협의회는 바이전주우수업체인 두메산골농조합법인을 방문해 특강 및 전주지역여성기업경영인협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우희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전주의 다양한 선진기업들과 문화공간을 방문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전주 방문을 기회로 양 지역에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병숙 전주여성기업경영인협회 회장은 "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중 하나인 구미시의 여성기업인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게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각 지역의 경제산업 분야 발전을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경제산업 및 문화교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해 지속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

전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배)가 제41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이날부터 18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박형배 예결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면서 혈세 낭비 사례나 부당 집행 내역 등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불투명한 내년 재정 여건에 대비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수 확보 등 재정확보 개선 방안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41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박형배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서연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남관우, 박혜숙, 최명철, 김원주, 양영환, 김세희, 김학숙, 문혜정, 전운미, 최명권, 한승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중화산1동과 중화산1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3일 통장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지를 돌며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 전주시 중화산1동 통장협의회, 환경정비 활동 실시

전주시 중화산1동(동장 김현도)과 중화산1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옥자)는 지난 13일 통장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지를 돌며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공원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김옥자 중화산1동 통우회장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깨끗한 중화산1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장협의회 위원들과 중화산1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및 /김욱기 기자

## 남원여행 추천코스

피어나다 남원

### 반나절 추천코스

- 광한루원
- 남원에촌
-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 함파우

### 1일 추천코스

- 광한루원
-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 정령치
- 서어나무숲

### 2박3일 추천코스

#### 1일차

- 서도역
-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

#### 2일차

- 훈분문학관
-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 광한루원
- 남원에촌
- 가야고분군
- 실상사

#### 3일차

- 지리산허브밸리
- 서어나무숲
- 함파우
- 정령치
- 지리산 뱀사골